왜 효도해야 하는가?

효도의 이론적 근거?

효도는 우리의 미풍양속 가운데 하나이건만 언제부터인지 효도라는 말이 금기어가 된듯하다. 부모가 자식에게 직접 효도하라고 말하기는 쑥스럽다. 노인으로서 젊은이들에게 효도하라는 말도 자신과 관련된 일 같아 녹록하지 않다. 다행이랄까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벌이가 되니까 명절과 어버이날을 전후로 방송이나 신문에 효도 상품의 광고가 그나마 효도의 명맥을 이어간다.

왜 효도라는 말이 금기어가 되었는지 그 배경은 복합적이다. 아마도 젊은이들이 혼인을 안 하거나 못하거나 혼인해도 아이를 낳지 않는 배경과도 연관이 있고, 예전처럼 부모님을 집에서 편안히 모실 수 없는 사회경제적 환경 탓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 어떤 것보다 큰 원인은 일단 남녀가 혼인하게 되면 각자의 배우자가 친자식처럼 시부모나 장인 장모에 대해서 갖는 감정이나 의무감이 예전 같지 않기 때문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조선시대처럼 배우자의 부모를 자기 친부모처럼 모실 의무감이 희박하다는 점이다. 문화와 가치관의 변화 때문이다.

아무튼 이런 사회의 변화 속에서 교육기관이나 전문기관에서 효도하는 풍토를 진작하고 교육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그런데 그런 교육기관에서 효도의 당위성 근거를 어디서 끌어오는지 모르겠다. 대부분 낳아주고 길러주니 그 은혜에 보답해야 한다는 논리 위주이다. 일종의 호혜 평등의 원리라고나 할까? 호혜 평등을 너무 강조하면 거래의 성격으로 변한다. 부모와 자식 사이의 사랑이 거래로 환산된다면, 거래 조건이 맞지 않으면 효도를 안 해도 된다는 논리가 성립한다.

바로 이 지점에서 왜 효도해야 하는지 그 근거부터 다시 검토해 봄이 좋을 듯하다. 해서 이 글은 이재의 문인 박성원(朴聖源, 1697~1757)이 지은『돈효록(敦孝錄)』가운데「효지체(孝之體)」에서 다루는 효의 본체를 살피고 효도의 근거를 찾아보려고 한다. 그 까닭은 대부분 효를 말할 때는 효의 구체적 행위 곧 효도의 행위를 말하기 때문이다. 이는 어쩌면 효도 본체의 작용 또는 말단이라 할 수도 있다. 작용이나 말단을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근본 까닭이나 소이연을 모르면 왜 효도하는지 모르는 맹목적인 행위가 될 수 있어서, 효도의 본체를 살피고자 한다.

박성원과『돈효록』

앞서 간단히 소개했듯이 박성원(朴聖源, 1697~1757)은 이재의 고제(高弟)로서 스승 문집 편찬을 주도했고, 한천시(寒泉詩) 논쟁에서 스승을 대신하여 한원진(韓元震, 1682~1751)의 인물성이론(人物性異論)을 비판한 적이 있다. 그는『의례유집(禮疑類輯)』과『돈효록(敦孝錄)』등 많은 저술을 남긴 학자이자, 언관(言官)과 강관(講官) 등을 두루 역임한 문신이다.

『돈효록』은 57권 23책으로 되어 있으며 고금의 경사(經史)에서 효행에 관한 글을 뽑아 엮은 책이다. 그 구성은 효의(孝義)·효교(孝敎)·생사(生事)·상사(喪事)·봉제(奉祭)·효감(孝感)·현미(顯美)·계술(繼述)·광효(廣孝)·수신(守身)·처변(處變)으로 되어 있다. 정조가 서문을 쓰고 영남 감영에서 간행했다.

이렇게 분류한 것에도 필요할 때는 작은 제목을 설정해 재분류했고, 취해 기록한 논설과 사실에 논의의 여지가 있는 것에만 줄을 바꾸어 세 칸을 낮추어 '안문(按文)'을 붙이고 그것을 통해 본인의 사상과 효행에 대한 견해를 나타냈다. 지금 다루고자 하는「효지체(孝之體)」도 그

가운데 하나이다. 이 책은 박성원이 심혈을 기울여 엮고 쓴 것으로, 효행에 관한 여러 글을 뽑아 엮어 편집했으므로 효도에 대한 사전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중용』의 효

「효지체」에는 맨 먼저 "인(仁)이란 인(人)이니 친한 이를 친하게 여기는 것이 크다."라는 『중용』의 말부터 시작한다. 이어 주희의 주석인 "인(人)이란 사람의 몸을 가리켜 한 말이다. 이 삶의 이치를 갖추어 자연히 불쌍히 여기며 자애(慈愛)하는 뜻이 있으니 깊이 체득하여 음미하면 볼 수 있다."라고 하였다.

또 "돈돈(旽旽)한 그 인이다."라고 하였는데, 주희는 "돈돈은 간절하고 지극한 모양이다."라고 하였고, 또 "'돈돈한 그 인이다'라는 말은 인륜 사이에 만약 조금이라도 어짊과 후덕함이 없으면 부모와 자식이 서로 관섭(管攝)하지 못한다."라고 하였다.

자, 이 글에서 효도의 근거를 찾을 수 있을까? 저자의 설명은 없으나 저자가 인용한 의도에서 그 근거를 찾을 수 있다. 바로 효도는 공자의 주요 사상인 인(仁)에 근거를 두고 있음을 금방 눈치챌 수 있다. 인이란 『논어』의 중심 사상 가운데 하나로서, 공자가 상황과 사람에 따라 다르게 표현하고 있어서 딱 무엇이라고 말하기는 어려우나 크게 두 가지 관점에서 해석할 수 있다. 하나는 도덕적 감수성이 살아 있는 인간 도덕성의 총칭이요, 다른 하나는 사람됨의 근거라는 뜻이다.

여기서는 둘 다 말하고 있다. '자연히 불쌍히 여긴다'라는 말은 측은지심처럼 도덕적 감수성이고, '친한 이를 친하게 여기는 것'은 사람다운 일이다. 친한 이는 자기와 가까이 있는 부모형제부터 시작한다. 이는 윤리 이전에 사람은 물론 동물도 처음 태어났을 때는 부모에게 절대적으로 의존한다. 그 의존을 다른 말로 '친한 이를 친하게 여기는' 행동이다. 이는 보편적 정서이다. 그러니까 효도는 원래 보편적 정서에 근거를 두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다만 동물은 새끼 때는 어미에게 절대적으로 의존하다가 다 자라면 떠나버리고 이후는 관여하지 않는다. 바로 여기서 인간이 됨은 자식이 자라 성인이 되어도 부모를 친하게 여긴다는 점이다. 이것이 인간이 되는 일이 효도의 철학적 근거라고 할 수 있다.

『논어』의 효

『논어』에서 맨 먼저 인용하는 효에 관한 내용은 「학이편」 가운데 있는 유자(有子)의 말이다. 곧 "그 사람됨이 효제(孝弟) 하면서 윗사람을 범하기 좋아하는 사람은 드물다. 윗사람을 범하기 좋아하지 않으면서 난동을 일으키기 좋아하는 사람은 아직 없다."라는 말이 그것이다. 이어 주희의 주석을 인용하는데, "부모를 잘 섬기는 일이 효도이고, 형이나 어른을 잘 섬기는 일이 제(弟)라고 한다. 범상(犯上)이란 위에 있는 사람을 범하는 일이다. … 이 말은 부모에게 효도하고 형이나 어른에게 공손할 수 있으면 그 마음이 온화하고 순하여 윗사람을 범하기 좋아하는 일이 드물어 난동을 일으키는 일을 반드시 좋아하지 않는다."라는 말이 그것이다. 이외에 『논어집주대전』 속의 주희의 말이 더 있다.

자, 『논어』에서 먼저 유자의 발언을 인용한 의도가 무엇일까? 이 말만 보면 공자의 중심 사상인 인과 직접 연관해서 말하지 않고 사회질서 측면에서 말했다. 곧 효도를 잘하고 형 같은 윗사람을 잘 공경하는 사람은 윗사람을 범하지 않는다는 사회질서의 유지 측면에서 말하고 있다. 저자가 이것을 먼저 인용하여 편집한 의도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것은 다름이 아닌 효도가 부모에 해당하는 것이지만, 그 효도라는 행위는 인간의 도덕 가운데 기초여서 그 기본적 도덕을 잘 갖춘 사람이라면 사회의 질서를 무너뜨리지 않는다는 확신에서 나온 것은 아닐지?

다시 말해 효도의 공리성(公利性)이라고 말해야 할까? 아무튼 그런 접근도 공동체의 안녕과 질서 유지라는 측면에서 보면 나름의 근거가 있다고 봐야 한다.

사실 이점은 과거 군주들이 유학을 받아들이고 적극적으로 강조하는 까닭 가운데 하나였다. 물론 효도만이 아니라 충성도 그러하다. 공자가 말한 원래의 충(忠)이란 자기 내면의 성실성을 일컬었지만, 후대에 모시는 임금이나 국가에 대한 충성으로 외적인 대상을 향한 규범으로 변질한 감이 없지 않다. 그렇지만 '진정한 충성'이 무엇이냐고 따진다면 이 또한 자기 내면의 성실성과 연결된다.

다음으로 『논어』에서 인용한 효도의 내용은 같은 곳의 "군자는 근본에 힘써야 하고, 근본에 힘쓰면 도리가 생기고 부모에게 효도하고 형과 같은 윗사람에게 공경하는 일은 인을 하는 근본일 것이다."라는 말이다. 이 말도 앞의 말과 이어진 유자의 그것이다. 드디어 효도를 인과 연결하였다.

소개한 주희의 주석을 보면, "힘쓴다는 말은 오로지 한 가지 일에만 힘을 쏟는다는 말이고, 근본이란 뿌리와 같으며, 인이란 사랑의 이치요 마음의 덕이고, 인을 한다는 말은 인을 실천한다는 뜻과 같다. 말하자면 군자가 모든 일을 근본이라는 한 가지 일에만 힘을 쏟아 근본이 서면 그 길이 저절로 생긴다는 뜻이다. 윗글의 이른바 효제야말로 인을 실천하는 근본으로서 배우는 사람이 이것을 힘쓰면, 인의 도리는 이것으로부터 생긴다."라고 하였다.

드디어 주희에 의하여 효도의 철학적 근거가 제시된다. 일단 먼저 본문의 '효제가 인을 실천하는 근본'이라는 말에 주목해 보자. 효제는 효도와 같은 말이다. 형과 같은 어른을 공경한다는 말을 요즘 감각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울 듯하다. 옛날에는 자식을 낳을 때까지 많이 낳는 일이 미덕이었다. 유아 사망률이 높아서 노동력확보를 위해 그럴 수밖에 없었던 역사·경제적 배경이 그랬다. 그래서 막내와 큰형의 나이 차이는 매우 커서 큰형은 부모 역할을 대신한다. 부모가 죽으면 형이 어린 동생을 키운다는 뜻이다. 동생이 조카보다 어린 경우도 생긴다.

아무튼 효도가 인은 실천하는 근본이라는 말이 유자의 말이기는 하지만, 주희가 그것을 인정했다는 점은 인이 드러나는 인간의 행위가 많지만 그래도 그 가운데 효도가 가장 으뜸이자 기본이라는 점이다. 인간은 어떤 대상에 대해서 도덕적 감수성을 느끼고 행동하게 되는데, 강아지나 이웃집 사람이나 친구 부모나 자기 부모에 대해서 그럴 수 있지만, 자기 부모에 대해서 하는 그것이 근본이라는 뜻이다. 어찌 보면 가장 자연스러운 감정의 발로일 수 있다. 그래서 유가들은 묵자가 남의 아버지도 같이 사랑하라는 겸애설(兼愛說)을 비판하였다.

또 주희가 인을 '사랑의 이치요 마음의 덕'이라고 했는데, 그가 말하는 이치는 천리(天理)이므로 사람이라면 당연히 천리를 따라야 하는 것이 그의 철학의 방향이다. 하지만 현대인 가운데는 그 논리를 따르지 않을 사람도 있겠다. 다만 '마음의 덕'이란 각자의 수양에 따라 가능한 일이다. 하지만 '천리니까 따라야 한다'라거나 '그래야 인간이 된다'라거나 '수양해서 어진 덕을 쌓아야 한다'라는 논리는 설득력이 약하다. 쉽게 말해 어떤 당위성으로서 현대인들에게 효도할 수 있는 설득력이 약하다는 점이다.

바로 여기서 '사랑의 이치'라는 말을 현대적으로 다시 해석할 필요가 있다. 사람이든 동물이든 자기를 예뻐해 주거나 잘해주는 사람을 좋아하고 따른다. 그것이 자연적인 이치라는 뜻이다. 사람의 부모도 대개 자기 자식을 무척 사랑하고 아낀다. 다 자란 자식에게도 그러하다. 문제는 그 사랑의 방식이 어떠냐가 중요하다. 자식 잘못 사랑하다가 되레 망치는 경우도 많다. 자식 말만 듣고 학교 담임교사를 자식 앞에서 비난하는 일은 진정한 자식 사랑이 아니다. 그러므로 효도도 자식이 올바르게 바른 사람으로 자라야 할 수 있는 문제이다. 옛날식으로 말해 자식도 군자가 되어야 강요하지 않아도 자발적으로 진정한 효도를 할 수 있다는 뜻이다. 거꾸

로 말하면 어진 사람으로 키우면 효도하게 된다는 말이 된다. 요즘 식으로 말하면 “인격이 훌륭한 사람이 되는 일이 효도하는 근본이 아니겠는가?”라고 말해야 한다.

『맹자』의 효

『돈효록』에서 『논어』 속의 효도는 앞의 두 꼭지밖에 없다. 이제 『맹자』 속의 효도를 살펴보면, 먼저 “인의 실질은 어버이를 섬기는 일이 그것이요, 의의 실질은 형을 따르는 일이 그것이다.”라는 말을 인용하였다. 이에 대해 주희는 “인은 사랑을 위주로 하고 사랑은 어버이를 섬기는 일보다 절실한 것은 없다. 의는 공경을 위주로 하고 공경은 형을 따르는 일보다 앞서는 것은 없다.”라고 풀었다.

이 『맹자』의 말도 『논어』 속 유자의 그것과 다를 바 없지만, 인에 이어 의(義)를 첨가하였다. 인과 의를 실천하는 일이 어버이를 섬기고 형을 공경하는 일이 그것이다. 이 또한 인을 실천하는 실질로서 효도와 공경이 도덕성의 근간이며 사람됨의 근본임을 말했다.

이것에 이어 『맹자』에서 또 예(禮)와 지(智)와 악(樂)의 실질로서 이 두 가지 일을 인용했다. 그러니까 인의예지라는 인간의 본성에도 이 두 가지 일에 연결하였는데, 그것이 본성의 실질이라고 한 이상 방해 요소만 없다면 인간성의 자연적인 발로이다. 맹자는 성선설을 주장하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었다. 그것이 진짜 본성일지는 차치하더라도 도덕 실천이 인간의 본성과 연결되어야 실효성이 있다는 말은 그 실천 동력을 끌어낼 수 있는 큰 시사점을 갖는다.

그 외에 인용하는 『맹자』의 글귀는 몇 개 더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만 소개하면 “요순의 도리는 효제일 뿐이다.”라는 말에 대해 주희는 “진 씨가 말하기를 ‘효제는 사람의 양지(良知)·양능(良能)의 스스로 그러한 본성이다. 요순은 인륜의 지극한 분으로서 이러한 성품을 따른 것뿐이다.’”라고 하였다. 양지와 양능은 맹자가 말한 선험적 도덕 능력이다. 양지와 양능의 선험성을 맹자는 유자입정(孺子入井)의 비유로서 논증했지만, 그 타당성 여부는 차치하고서라도, 효도를 인간 본성 실현으로 보았는데, 앞서 말한 것처럼 본성이란 자연스럽게 누가 시키지 않아도 발휘된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성리학에서 그 까닭은 자세히 설명했다.

본성이 생물학적으로 타고났던 사회적 환경에 따라 형성되었든, 아니면 양자의 통일체이든 그 발현이 도덕적이라면 도덕 실천의 동력을 고민할 필요 없다. 바로 여기서 효도의 근거인 인이 중요하며, 그 인이 도덕적 감수성과 관련된다면 효도를 통해 계발할 수 있다. 어쩌면 효도가 가장 손쉽게 도덕성을 발휘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이다.